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## 손해보험협회,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우려

- 전 부시행정부 관료이자 현 미국 손해보험협회 회장인 Sampson은 협회 연차회의에서 정부의 의료보험제도 개혁 움직임이 손해보험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냄.
-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민영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공보험제도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건강보험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함.
  - 또한 이러한 공격이 의회의 금융서비스 규제개편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전체 보험 산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주장함.
  - 그는 정부가 보험시장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리스크를 사회화하는 것이 오늘날 보험 산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함.
- Sampson은 보험산업을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로 경제성장 둔화,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, 정부의 감독규제강화 등을 언급함.
- 실업률이 내년 초반 10%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아직 경기가 완전한 회복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며,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임.
  - 높은 실업률과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한 민간투자 등은 보호무역주의 조짐과 함께 손해보험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또한 2008년 재정적자가 1조 4000억 달러에 달하여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리, 교환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손해보험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음.
  -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손해보험산업은 금융서비스 규제개편작업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,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, 임직원 보상한도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
(Insurance Journal, 10/26)